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분들과 나누고자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북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perf@ntck.or.kr



국립극단

파우스트 엔딩

FAUST ENDING



국립극단

국립극단 파우스트 엔딩 Faust Ending

원작 요한 볼프강 폰 괴테 Johann Wolfgang von Goethe

재창작·연출 조광화



인사말	국립극단의 한 해를 엽니다. ■ 김광보	2
재창작 작가·연출의 글	파우스트적 엔딩을 경계하며 ■ 조광화	3
연출가 인터뷰	구원으로부터의 자유 ■ 남궁경	4
줄거리		8
출연진		10
인물관계도		16
작품 이해돕기—1	괴테가 아닌, 조광화의 〈파우스트 엔딩〉 ■ 김주연	18
작품 이해돕기—2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향한다.” ■ 전영애	21
작품 이해돕기—3	원작자 소개: 요한 볼프강 폰 괴테	24
공연연보		25
무대디자인 스케치		26
퍼펫디자인 스케치		28
연습 스케치		30
스태프 프로필		32
만드는 사람들		33

국립극단의 한 해를 엽니다.

김광보_단장 겸 예술감독

국립극단은 2021년 한 해를 여는 첫 작품으로 <파우스트 엔딩>을 공연합니다. 작년 우여곡절 끝에 공연을 올리지 못했던 터라 연습 내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다행히 모든 참여자들의 노력으로 난관을 잘 헤쳐 나가 무사히 막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광화 연출과 저는 1995년에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때는 작가 조광화로 더 잘 알려져 있었는데 그의 작품 <종로고양이>와 <꽃뱀이 나더러 다리를 감아보자하여>를 제가 연출했습니다. 이후 각자도생하다 보니 도통 함께 할 기회가 없었지만 2021년 국립극단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곳에서 그의 연출작 연습을 슬쩍 훑쳐보고 있자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얼마 전 제 집무실에서 두 시간 가까이 수다를 떨며(저 혼자 떠들었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는 좋은 친구입니다.

김성녀 선생님은 작년 연습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던 터라 행여 다시 참여하지 못하시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연습 첫 날 손수 뜨신 수세미 뭉치를 풀어 놓으시며 하나하나 직접 나누어 주시고 떡까지 마련해 주셔서 저는 녀석 좋게 떡을 받아들며 큰 어른의 도량이 느껴져 남몰래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과 같은 멤버들로 연습하고 공연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역할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처음처럼 다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국립극단은 2020년에 못다 한 한 해를 2021년에 두 배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역병 따위는 가볍게 물리치고 순탄한 한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처럼 우직한 걸음을 터벅터벅 걸어가겠습니다. 국립극단을 성원해주십시오.

파우스트적 엔딩을 경계하며

조광화_재창작 작가·연출가

버려진 도시
갈라지고 허물어진 건물들과 아스팔트
정적... 가끔...
때 지어 몰려다니는 들개 무리

파우스트가 느꼈던 무력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친 학문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느꼈지요. 인류가 스스로 이룬 문명의 끝에 서면 그런 기분일까요? 인류의 기나긴 역사에 걸쳐 노력해 왔음에도 인간은 아직도 이상적 사회를 만들지 못한 것은 아닌지요.

세계와 주변은 온통 혼란이 가득합니다. 수많은 주장들은 서로 충돌하며 모순만을 드러내고 그 어느 하나의 주장에 끼어들면 어느 순간 억지부리기에 휩쓸린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믿었던 상식은 권위나 위선이나 편견이 되고 정의는 누군가를 해치는 혐오로 곧잘 변질되었습니다.

파우스트는 우리 문명사회가 그래 왔던 것처럼 것처럼 세상을 이해하려하고, 인간의 모순을 극복하려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마음이 조급해져 일거에 세상을 개혁할 획기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메피스토는 파우스트의 그런 열망을 자극해 더 큰 모순을 겪게하고 그를 해결하느라 더욱 파괴적인 행적을 이어가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결국, 파우스트적 엔딩을 맞이합니다.

밀란쿰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오이디푸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자신이 모르고 저지른 죄임에도 자신의 눈을 찔러 스스로를 벌하는 오이디푸스,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고도 책임지지 않는 위정자들, 그들을 비교하고 책임지지 않는 행태들을 비판합니다. 우리가 행한 후의 결과들은 결국 우리가 책임질 일입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천천히 가야할 때 아닐까요? 이제는 이루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멈추는 데에서 우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고 문명이 정지할 수는 없으니 한 걸음 한 걸음을 보다 신중히 내딛고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지옥에 던져질 지도 모른다는 각오로 걸어야겠지요.

구원으로부터의 자유

조광화 연출가 인터뷰

인터뷰 진행·정리 남궁경_자유기고가



〈파우스트〉 1, 2부의 대서사를 무대 위에서 모두 보여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파우스트 엔딩〉은 각색이 아닌 재창작을 통해 1, 2부의 통합을 꾀하고, 또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재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주제에 있어 구원을 내세운 원작과는 다른 선택을 하셨더군요. 사건을 전개하신 방식은 원작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주제적인 측면에서 반전과 도전이 등장하지요. 〈파우스트 엔딩〉을 재창작하신 의도가 궁금합니다.

▶ 원작과 주제가 달라졌다고 하셨는데 엔딩에 있어 파우스트가 신의 구원을 거부했다는 것만 다를 뿐이지요. 사실 파우스트에 깔려 있는 중요한 정신은 기본적으로 모두 승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요한 정신은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향하느니라’는 작품 속 구절로 제시되고 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고, 또 알고

조광화 Jo Kwang-hwa

1992년 문화일보 하계 문예공모 희곡 부문에 당선되면서 데뷔했다. 이듬해 극단 작은신화에서 최용훈 연출로 무대에 오른 〈황구도〉가 평단과 대중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종로 고양이〉 〈오펜리어〉 등을 잇따라 선보이며 극작가로 활동했다. 1997년에는 〈남자충동〉을 통해 연출가로도 크게 이름을 알렸다. 연극과 뮤지컬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주요작품

연극 [작/재창작-연출] 〈미친키스〉 〈도화만발〉 〈남자충동〉 〈철안봇다〉
[연출] 〈프랑켄슈타인〉 외 다수
뮤지컬 [작/대본-연출] 〈모래시계〉 〈소리도둑〉 〈천사의 발톱〉
[연출] 〈남한산성〉 〈내 마음의 풍금〉 〈베르테르〉 〈달고나〉
[작/대본] 〈서편제〉 〈락 햄릿〉 외 다수

수상

2012 제1회 서울뮤지컬페스티벌 예그린어워드
작사작곡상 〈서편제〉
2008 제14회 한국뮤지컬대상 최우수작품상, 연출상
〈내 마음의 풍금〉
2007 제1회 뮤지컬어워드 연출상 〈천사의 발톱〉
1999 제1회 김상열연극상 〈철안 봇다〉
1998 제34회 동아연극상 작품상, 연출상 〈남자충동〉
1998 제34회 백상예술대상 대상, 희곡상 〈남자충동〉
1997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1992 문화일보 신춘문예 희곡부문 『장마』 외

하죠. 파우스트는 인간이 무엇이며 완전함은 또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는데, 학문적인 것 외에 심지어 속세와 사랑에 대해서도 알려고 해요. 그렇게 파우스트라는 인물이 모든 것을 알고자 하니까 작품의 내용 또한 방대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녀들이 맥베드의 욕망을 자극하는 예언을 하듯이, 메피스토토도 파우스트의 내면에 있던 부정적인 욕심과 야망을 자극하고 결국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죠. 많은 노력을 할수록 실수도 많아지고, 더 큰 행위를 할수록 더 큰 희생이 따라오게 되는, 원작은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런 맥락을 우리 작품에서도 역시 따라가고요.

그렇게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잘못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원작은 그렇지 않죠. 노력했으니 그걸로 됐고, 방황했지만 결국은 선한 사람이니 구원해준다는 말로 너무 쉽게 용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었고, 그래서 결론 부분만 다르게 간 것이죠. 원작이 시대의 한계라든가 영향 때문에 기독교식의 구원이라는 결론을 냈지만 괴테가 지금 살아있다면 저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았고, 그렇게 ‘엔딩’에 범점이 찍혔어요. 신에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잘못에 책임지고 지옥으로 간다는 식으로 엔딩이 바뀌어서 파우스트 엔딩이기도 하고, 혹은 이렇다가 정말로 세상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 즉 파우스트적인 엔딩을 경계하자라는 의미에서 파우스트 엔딩이기도 해요.

파우스트라는 인간의 욕망이 작품을 끌여가는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원작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원작에서의 욕망과 이번 작품에서의 욕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작에서의 욕망이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본능적이고 보편적인 욕망이라면, 이번 작품에서의 욕망에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는 젊은 남성
성에 대한 성적 끌림으로 찾아간 곳에서 만난 그레첸의 모습에 한눈에 반하는 것은 욕망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요. 이 질문은 파우스트가 여성이어야 했던
이유와도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파우스트가 여성이어야 했던 이유와 그가 진짜 욕망한 것이 무엇일까요?

▶ 파우스트를 여성으로 설정한 것은 작품을 준비하면서 영향을 받게 된 어떤 흐름 때문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 작품을 준비하는 동안 맨씨어터의 〈메리제인〉이라는 작품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픈 아이를 함께 돌보는 여성들이 서로 교감하고 연대하는 이야기인데, 대체 저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는 힘의 정체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이상적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사람을 끼워 넣는 식의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교감하는 데서 나오는 힘이 더라고요. 이번 작품에서도 파우스트가 그레첸을 만나서 새로운 감정을, 즉 도서관에서 쌓은 세상에 대한 이해가 아닌 인간과의 진실된 교감을 경험하게 돼요. 원작에서

는 인간을 개조하고 교육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계몽주의가 파우스트의 이상향으로 등장하지만 우리 작품에서는 공감, 교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 파우스트가 갈망하는 대상으로 교체되죠.

그리고 제가 〈파우스트〉 작품을 너무 좋아하지만, 파우스트와 그레첸의 이야기는 크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늙은 남자가 마법의 힘으로 젊어져서 자기보다 훨씬 어린 여성과 연애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젊은 척하면서 연애를 하다가 결국 여성을 망가뜨리는 얘기죠. 시대가 요구하는 젠더 감수성에 이런 이야기가 잘 맞지도 않거니와 원래도 그 젊어진다는 설정이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파우스트가 여성이라면 그레첸과의 교감도 가능할 테죠. 그게 저한테는 더 흥미로웠고, 더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도 가능할 것 같았어요. 책이라는 이데아 속에서만 평생을 살던 파우스트가 그레첸과의 교감을 통해 세상과 사람을 알게 되고, 그러나 그 관계에 실패를 하게 되자 이에 대한 실망감으로 더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과정으로 구성을 하게 된 것이죠.

극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인류의 끝을 향해 가는 종말론적인 절망이 드러납니다. 이성을 추구하던 학생들이 들개가 되고 결국 그것이 인류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것과, 절대적 존재인 신의 허술함이 드러나는 것 등이 로고스 즉 기존 질서의 와해를 보여준다고 생각했구요. 그렇다면 그 와해된 자리를 신이 선택한 호문쿨루스가 채우게 될까요? 즉 마르테와 들개가 결합해서 태어난 기괴한 호문쿨루스가 인류를 대체할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

이번 작품에서

호문쿨루스를

바라보는 신의 관점은

파우스트나 바그너 즉

호문쿨루스를 창조한

인간의 관점과

완전히 달라요.

”

▶ 마치 SF장르처럼 기술을 이용해 생명체를 창조하는 원작의 내용을 보고 그 시대에도 그런 상상을 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이번 작품에서 호문쿨루스를 바라보는 신의 관점은 파우스트나 바그너 즉 호문쿨루스를 창조한 인간의 관점과 완전히 달라요. 신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지속적으로 찬양할 존재가 필요한데 인간이 모두 절멸했으니 새로운 창조물인 호문쿨루스로 세상을 다시 시작해 보겠다는 거예요. 애초에 자신을 계속 찬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게 꼭 인간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마치 인간을 구원할 존재가 우리 존재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구원하러 오는 신의 형상을 복제인간이나 로봇으로 그릴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신을 포함한 자연의 입장에서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존재, 한때 번성한 종족일 뿐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득을 위해 계속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잖아요. 인공지능이든 로봇이든 뭐가 되었든 간에 그것들이 우리를 밀어낼지도 모른다는 걸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되지 않냐는 것이죠. 바그너와 학생들은 미친 과학자처럼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취해서 무언가를 만들거든요. 어쨌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했구요.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낸 것들이 우리를 밀어내고 우리 자리를 대체할 지도 모르니, 인간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존속하려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대체하는 존재들이 지구의 입장에서 더 나올 거라는 보장도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작품에 등장하는 호문쿨루스가 인간을 대체한다 해도 결국 인간처럼 똑같이, 아니면 더 나쁘게 일을 수행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마지막에 보여준 파우스트의 선택은 일종의 쾌감을 주는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 구원을 관장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었는데 인간 스스로 지옥을 선택한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니까요. 이 엔딩의 선택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표현일까요?

▶▶ 그 선택은 ‘자기가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진다’는, 오이디푸스적인 거예요. 오이디푸스는 모르고 지은 죄임에도 스스로를 벌했잖아요.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주인공 토마시가 자신의 글에 오이디푸스를 언급하며 ‘위정자들이 부끄러운 짓을 벌이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과 같은 뉘앙스예요. 파우스트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결말에 이르러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제일 납득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레첸은 몰라도 그 많은 죄를 저지른 파우스트가 왜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대인들, 대중의 마음인 것 같아요. 죄 지어도 현금 내고 회개하면 구원 받는다는 것에 화가 나는 거죠. 우리 작품에는 그게 반영된 것이구요

그렇다고 이번 작품의 신이 특정 종교의 신에 국한된 것은 아니예요. 일종의 범신론적인 의미인데, 기독교적 배경으로 쓰인 원작에 가브리엘이나 라파엘 같은 특정 이름이 등장해서 그런 느낌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작품에서의 악마와 신의 의미란 결국 혼란과 질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우스트가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게 메피스토펠트가 작동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원작에서의 신도 표면적으로만 있지 어떤 철학적 신인 것 같아요. 질서를 관장하고, 만족한 상태, 그리고 낙천성, 이런 것이 신의 특성이죠. 괴테가 최대한 인간에게 남아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했다면, 저는 오히려 얼마나 인간이 불안정하면 저렇게 애써서 믿으려 하는 가를 본 거죠.

말씀을 듣다 보니 세상에 대한 디스토피아적인 전망과 그에 이르게 한 인간의 이성적 노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신에게 기대할 게 없는 인간이 난관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결국 어떻게든 질서를 유지하려는 이성의 힘이 아닐까요?

▶▶ 저는 이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예요.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드는 노력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다만 그 행위들이 혹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극단적으로는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움을 갖고 일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꾸고 훌륭하게 만들겠다면서 벌인 인들이 오히려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는 일이 많았잖아요. 원작에서 파우스트의 간척사업에 의해 바우키스와 필레몬이 죽지요. 어쩌면 우리도 너무 서두르면서 오지 않았나, 하는 것이예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건데 결과는 사람을 죽게 한 것이죠. 원작 파우스트 2부에 등장하는 모티브를 이번 드라마에 넣고 싶었던 것은 그 간척사업 얘기를 하고 싶어서였어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작품에서는 간척사업이 인간개조로 대체된 거죠. 극단적 계몽주의를 통해 인간사회를 이데아로 만들겠다는 과격한 사상이 학살을 불러오기도 해요. 원작에서 성급한 간척사업 때문에 죽은 바우키스와 필레몬은 이번 작품에서 유일한 생존자가 되지요. 나무를 가꾸고 삶과 죽음의 순리를 받아들이며 자연과 함께 하는 그들의 삶이 어떤 대안적인 희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

괴테가

최대한 인간에게
남아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했다면,
저는 오히려
얼마나 인간이 불안정
하면 저렇게 애써서
믿으려 하는 가를
본 거죠.

”

세계 곳곳에서 멸망이 시작되고, 난민들이 파우스트의 도시로 몰려든다. 인류를 위해 평생을 연구했지만 한계에 부딪힌 학자 파우스트는 허무에 빠져 자살을 결심하는데, 이 때 악마 메피스토틀이 나타나 어린 시절의 열정을 되돌려 주겠노라 영혼을 건 내기를 제안한다. 그러던 어느 날 파우스트 앞에 젊고 건강한 청년 발렌틴과 순수하고 맑은 마음씨의 산모 그레첸이 나타나면서 이들의 삶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그런 그들을 보며 메피스토틀은 점점 승리를 예감하는데...

※본 작품은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파우스트』를 바탕으로 조광화 작가·연출가가 재창작하였습니다.





※Adapted by playwright
and director Jo Kwang-hwa
based on Faust by Johann
Wolfgang von Goethe.
Original novel written
by Johann Wolfgang von
Goethe.

Destruction rages around the world, and refugees flock to Faust's city. Faced with his own limitations as a scholar, Faust despairs and decides to take his own life. Suddenly, Mephisto the devil appears before him and offers to restore Faust's youthful passion in return for his soul. Then one day, Faust encounters Valentin, a healthy young man, and Gretchen, a pregnant woman with a pure heart. As their lives fall into chaos and confusion, Mephisto senses his own victory...



김성녀 Kim Seong-nyo

파우스트 Faust

연극

〈햄릿〉 16 | 호레이쇼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유리동물원〉 15,14 | 아만다 | 명동예술극장
 〈남사당의 하늘〉 08,93 | 바우덕이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외
 〈죽음과 소녀〉 98,92 | 파울리나 | 문예회관 대극장 외
 〈멕베드〉 94 | 멕베드부인 | 문예회관 대극장
 〈한네의 승천〉 79,76 | 한네 | 문화체육관 외
 뮤지컬
 〈맛있는 만두 만드는 법〉 20,19,18 | 모노드라마 |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 외
 〈벽속의 요정〉 20-05 | 모노드라마 | 대구봉산문화회관 대공연장 외
 〈아리랑〉 17,15 | 감골택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외
 〈최승희〉 03 | 최승희 |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외 다수

수상

2010 제20회 이해랑연극상
 2005 제42회 동아연극상
 1996 제2회 한국뮤지컬대상 여자주연상
 외



박완규 Park Wan-kyu

메피스토 Mephisto

연극

〈왕서개 이야기〉 20 | 임팔 | 남산예술센터
 〈물고기 인간〉 19 | 위씨영감 |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돼지우리〉 18 | 파벨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괴벨스 극장〉 18,16 | 괴벨스 | 연주소극장 외
 〈국물있사옵니다〉 16 | 김상범 | 백성희장민호극장
 〈잠 못드는 밤은 없다〉 10 | 히키코모리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외
 〈안티고네〉 10 | 크레온 | 선돌극장
 외

수상

2016 제53회 동아연극상 연기상
 2016 제12회 하얀수건상
 2010 제47회 동아연극상 신인연기상
 2010 제15회 히서연극상 기대되는 연극인상
 2010 제3회 대한민국 연극대상 신인상



김세환 Kim Se-hwan

바그너·라파엘 Wagner and Raphael

연극

〈사시나무 숲〉 20 | 동산 | 연우소극장
 〈여름이 지나갈 때〉 20 | 민재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스웨트 SWEAT〉 20 | 오스카 | 명동예술극장(온라인극장)
 〈버닝필드〉 20 | 진우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스푸트니크〉 20,19 | 남자2 | 서강대메리홀 소극장
 〈자본〉 19,18 | 세환 | 연우소극장 외
 〈록앤롤〉 18 | 스티븐 외 | 명동예술극장
 〈향수〉 18 | 아들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4Four〉 18,17 | R | 아트원 씨어터 3관 외
 〈검열언어의 정치학: 두 개의 국민〉 17,16 | 윤관석 외 | 연우소극장 외



신사랑 Shin Sa-rang

그레첸·가브리엘 Gretchen and Gabriel

연극

〈아는 엔딩〉 20 | 마르타 | 선돌극장
 〈스푸트니크〉 20,19 | 여자2 | 서강대메리홀 소극장
 〈전화벨이 울린다〉 18 | 수진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당신이 알지 못하나다〉 17 | 다연 | 남산예술센터
 〈널 위한 날 위한 너〉 17 | 준희 | 소극장 판
 〈괴벨스극장〉 16 | 다역 | 연우소극장 외
 〈겨울이야기〉 16 | 페르디타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리처드 2세〉 14 | 왕비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14 | 옥순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목란언니〉 13 | 허태양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외



장재호 Jang Jae-ho

발렌틴·갓 Valentine and God

연극

〈새들의 무덤〉 20 | 판수 | 동양예술극장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20,18,17,15 | 서예 외 | 명동예술극장
 〈낙타상자〉 19 | 유사장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외
 〈리처드 2세〉 14 | 로스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길 떠나는 가족〉 14 | 중석/포대령 외 | 명동예술극장
 〈아리랑 랩소디〉 13 | 박살제 |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꿈〉 12 | 조신 | 백성희장민호극장
 〈크로이체르 소나타〉 10 | 포즈드니셰프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외
 〈벚꽃동산〉 10 | 로빠힌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엘렉트라〉 08 | 오레스테스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외



강현우 Kang Hyun-woo

독약장수·학생·시민·들개 Drug dealer, Student, Citizen and Bush dog

연극

〈햄릿〉 20 | 포틴브라스 외 | 명동예술극장(온라인극장)
 〈동양극장 2020〉 20 | 이홍규 | 백성희장민호극장(온라인극장)
 〈어떤접경지역에서는〉 19 외 | 황철호 | 동양예술극장 외
 〈깨끗하고 연약한〉 18 | 권용국 | 예술공간서울
 〈드림타임〉 17 | 정시우 | 소극장 판
 〈해맞이〉 15 | 브로카 | 선돌극장
 〈별〉 15 외 | 안대리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외
 〈웰즈로드 12번지〉 14 | 이익슨 | 정보소극장
 〈B성년-美성년으로간다〉 14 | 백설주 | 해화동1번지
 〈삼국유사-만파식적 도난 사건의 전말〉 14 | 무사 | 백성희장민호극장 외



고애리 Go Ae-ri

바우키스·학생·시민·행인·들개
 Baucis, Student, Citizen, Passersby and Bush dog

연극

〈당신이 밤을 건너올 때〉 20 | 정연 | 백성희장민호극장
 〈메모리 인 드림〉 19 | 앨런 | 해오름 예술극장
 〈어둠상자〉 18 | 강윤아 외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미안합니다, 픽션입니다〉 18 | 니나·삼순 | 여행자극장
 〈춘향〉 18 | 몽룡 모 | 나은씨어터
 〈B클래스〉 18 | 서정인 | 수현재씨어터
 〈소〉 17 | 우연희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장수상회〉 17 | 김민정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외
 〈그리스의 여인들-안티고네〉 17 | 안티고네 | 나은씨어터
 〈왕과 나〉 16 | 인현황후 외 | 미마지아트센터 눈빛극장 외



권은혜 Kwon Eun-hye

마르테·호문쿨루스·걸인·들개
 Martha, Homunculus, Beggar and Bush dog

연극

〈스카팜〉 20 | 아르강뜨·네린느 | 명동예술극장 외
 〈불꽃놀이〉 20 | 세영 | 소극장 판
 〈안티고네〉 19 | 이스메네 | 강동아트센터
 〈7번국도〉 19 | 용선 | 남산아트센터 드라마센터
 〈드라곤 킹〉 19, 18 | 연기꾼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외
 〈더 정글북〉 18, 17, 16 | 모글리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외
 〈원이엄마〉 18, 16, 15 | 몽태 |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백조홀 외
 〈로미오와 줄리엣〉 18 | 벤볼리오 | 강동아트센터 외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18, 14 | 고양이 외 | 산울림 소극장 외
 〈미녀와 야수〉 17 | 원숭이 집사 | 강동아트센터 외



김보나 Kim Bo-na

헬레나·의학도·시민·행인·들개
Helena·Student of medical, Citizen, Passersby and Bush dog

연극

〈햄릿〉 20 | 호레이쇼 | 명동예술극장(온라인 극장)
〈동양극장 2020〉 20 | 윤정옥 | 백성희장민호극장(온라인극장)
〈뎃글부대〉 19 외 | 임소진 | 동양예술극장 외
〈햄릿-디 액터〉 19 | 사라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카르멘〉 19 | 카르멘 | 정동 세실극장
〈응, 잘가〉 19 | 종삼 | 여행자극장 외
〈‘미인도’ 위작 논란 이후 제2학예실에서 벌어진 일들〉 17 | 조성원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소〉 17 | 동이엄마 | 광주아시아문화전당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13 | 윤보나 | 혜화동1번지 외



김진 Kim Jin

학생·시민·행인·마녀·들개
Student, Citizen, Passersby, Witch and Bush dog

[안무감독]

연극 〈무모할지라도 안티고네〉

[협력 안무감독]

〈너를위한글자〉 〈MURDERER〉

[안무조감독]

뮤지컬 〈킹키부츠〉 〈신과함께〉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판〉 〈풍월주〉
창극 〈우주소리〉 외



박경주 Park Kyung-zoo

필레몬·학생·시민·도둑·들개
Philemon, Student, Citizen, Thief and Bush dog

연극

〈스카팜〉 20, 19 | 실베스트르 | 명동예술극장 외
〈한여름 밤의 꿈〉 19 | 엉덩이 닉 보텀 | 명동예술극장
〈보이지 않는 도시〉 19 | 개발업자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갈릴레이의 생애〉 19 | 루도비코 외 | 명동예술극장
〈호신술〉 18 | 박정훈 | 백성희장민호극장
〈운명〉 18 | 장한구 | 백성희장민호극장
〈성〉 18 | 아르투르 외 | 명동예술극장 외

수상

2017 제7회 서울미래연극제 연기상 〈BJ 파우스트〉



박성민 Park Sung-min

인문학도·도둑·시민·들개 및 마르테·호문쿨루스 커버
Student of humanity, Thief, Citizen and Bush dog

연극

〈Beyond 2020〉 20 | 퍼포머 | 문화비축기지
〈이 새끼 다〉 20 | 성민 | 동송무대 소극장
〈나의 음식 분투기〉 20 | 성민 | 오두막 스튜디오
뮤지컬
〈Midnight Travel〉 20 | 찰리 | 스테이지66



박용환 Park Yong-hwan

법학도·시민·군인·들개 Student of law, Citizen, Soldier and Bush dog

연극

〈홀스도메르〉 14 | 코러스 | CGV신한카드아트홀
〈라이어〉 12,11 | 바비 | 해피씨어터
〈오장군의 발톱〉 10 | 먹쇠 | 명동예술극장
〈맥베스〉 09 | 마녀 | 아름다운극장
뮤지컬
〈경성판성권〉 13 | 우승일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더 라이프〉 08 | 앙상블 | 한전아트센터 대극장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07 | 앙상블 |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영화 〈타인은 지옥이다〉 〈내리실역은 없습니다〉 〈살춘기〉 〈칸〉 〈굿바이 싱글〉 외



변상문 Byun Sang-moon

학생·시민·군인·들개 Student, Citizen, Soldier and Bush dog

연극

〈편의점 남자〉 20 | 장새벽 | 연희예술극장
〈춘향전 VOL.1: Spring Is Coming〉 19 | 변학도 | 연희예술극장
〈지금은 알 수 없어〉 17 | 은성 | 산울림 소극장
〈동주〉 16 | 윤동주 | 산울림 소극장
〈해롤드 핀터_room〉 15 | 샌즈 부부 | 혜화동1번지
〈한하운, 나의 슬픈 반생기〉 15 | 하운 | 성균관 소극장

영화 〈문〉 〈청춘레시피〉 〈잉걸〉 〈카메라를 든 여자〉 〈광주국제영화제 초청 작 '행복'〉 〈부서진 수박〉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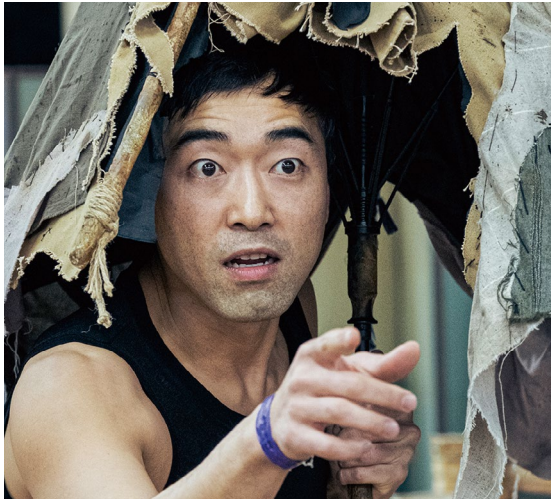


이원준 Lee Won-joon

시장·신학도·호문쿨루스·시민·들개
Mayor, Student of theology, Homunculus, Citizen and Bush dog

연극

〈당신이 밤을 건너올 때〉 20 | 준수 외 | 백성희장민호극장
〈동양극장 2020〉 20 | 이명규 | 백성희장민호극장(온라인극장)
〈2호선 세입자〉 19 | 홍대 | 바탕골 소극장
〈연애플레이리스트〉 18 | 김민우 | 유니플렉스 2관
〈망원동 브라더스〉 18,17 | 오영준 | 프라임아트홀 외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17 | 권진우 | CJ 아지트 대학로
〈아단성〉 15 | 진평왕 | 단양문화예술회관
〈죄와 벌〉 12 | 코러스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외



이종혁 Lee Jong-hyuck

학생·시민·마녀·들개 Student, Citizen, Witch and Bush dog

연극

〈템플〉 19 | 다역 |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뮤지컬
〈노트르담드파리〉 20,19,18,13 | 댄서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외
〈모래시계〉 18 | 앙상블 |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곤 투모로우〉 16 | 앙상블 | 광림아트센터 BBCH홀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15 | 앙상블 | 광림아트센터 BBCH홀
〈라카지〉 13 | 한나 | LG아트센터
〈피맛골연가〉 11 | 앙상블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수상

2013 제3회 Padaf 연기상
2011 제1회 현대극 페스티벌 무용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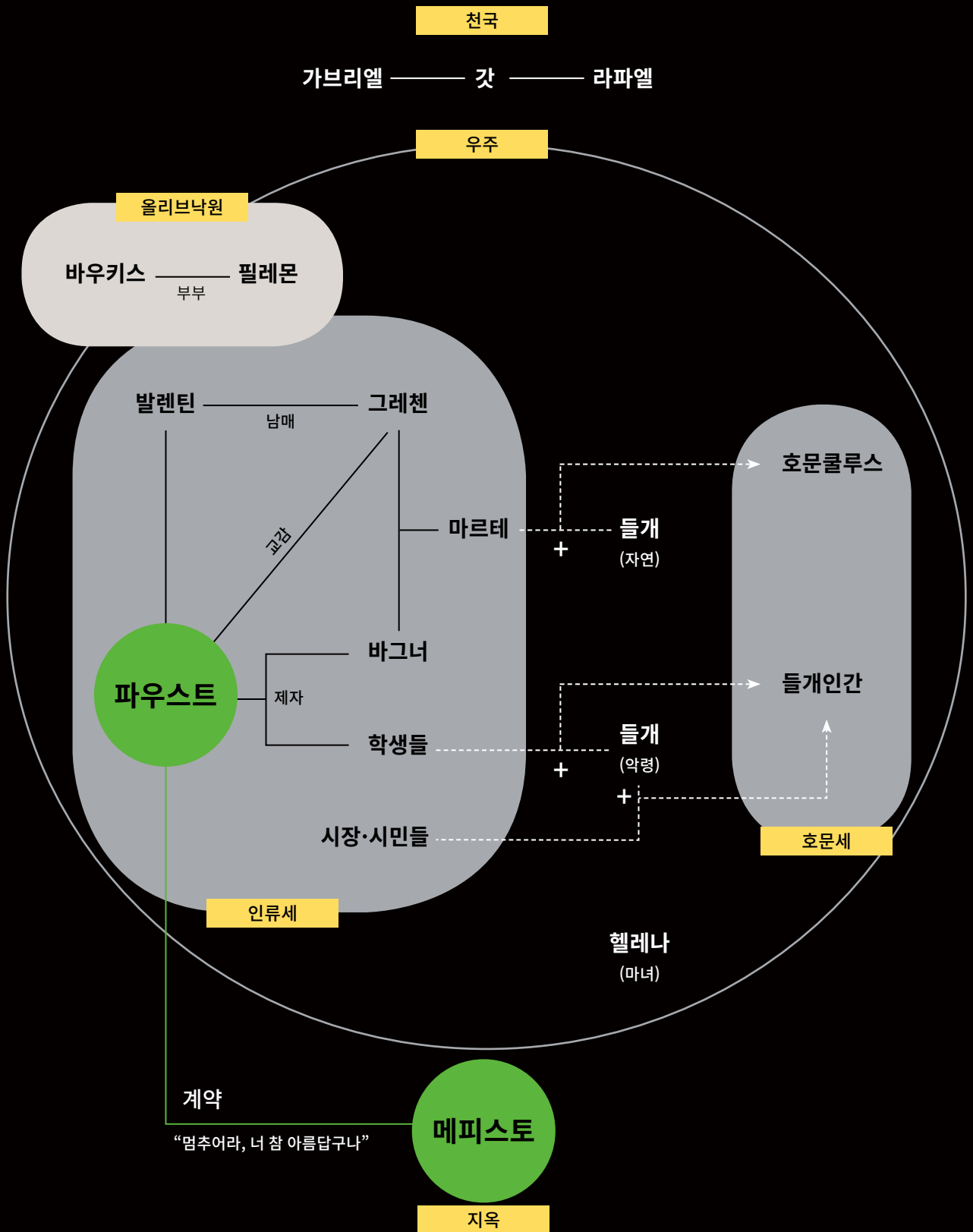


전주일 Jeon Ju-il

학생·시민·들개 Student, Citizen and Bush dog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 19 | 앙상블 | 디큐브아트센터
〈엘리자벳〉 19,18 | 앙상블(빈디쉬 커버) |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
〈모래시계〉 18,17 | 앙상블(오계장 커버) |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기적소리〉 17 | 정선생 | 봉산문화회관 가운홀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 팔리아치〉 16 | 무용수 | 대구오페라하우스





괴테가 아닌, 조광화의 〈파우스트 엔딩〉

김주연
드라마투르기

괴테의 〈파우스트〉를 기대하며 극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파우스트 엔딩〉은 다소 파격적이고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원작과 달리 신은 우스꽝스럽고,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랑에 대한 관념도 원작과 전혀 다르다. 사실 〈파우스트 엔딩〉은 괴테의 〈파우스트〉를 축약하거나 재현한 작품이 아니라 작가 조광화가 읽고 해석한 〈파우스트〉, 그가 〈파우스트〉의 프리즘으로 바라본 세상을 그린 작품이다. 때문에 이 공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괴테의 원작을 한 줄 한 줄 음미하기보다는 작가 조광화의 시선을 들여다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실제로 〈파우스트 엔딩〉에는 작·연출가로서 조광화가 천착해온 주제와 모티프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작가의 시선이 향하는 곳

〈파우스트 엔딩〉에서 무엇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끝없는 욕망과 이로 인한 파멸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선이다. 무언가를 욕망하면 욕망할수록 파괴로 치닫는 모습은 이미 〈미친 키스〉 〈철안뿔다〉 등 조광화의 전작에서도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으며, 이번 작품에서는 특히 인류 번영을 위해 축적해온 지식과 기술이 오히려 인간을 위협하고 세상을 파괴한다는, 문명 전체에 대한 반성적 시선으로 드러나고 있다. 극중 파우스트의 연구실은 이러한 인간 문명의 축소판과도 같다. 법, 의학, 예술, 종교 등 각 분야에서 더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해 다투는 학생들의 공간이자 파우스트가 유토피아를 꿈꾸며 인간개조를 시도하는 이 공간이야말로 ‘더 잘 살기 위한’ 인간

의 욕망이 어떻게 세상을 파멸시키는 지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조광화 작품들이 끝없는 욕망과 그로 인한 파멸을 적나라하게 그리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파우스트의 마지막 선택을 통해 이 비극의 책임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짊어져야 한다는 작가의 변화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공연의 클라이맥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원작 〈파우스트



트)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파우스트〉 공연은 1부 위주로 이루어지며, 2부까지 포함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파우스트 엔딩〉은 원작 2부에 등장하는 호문쿨루스와 파우스트의 간척사업(이 작품에서는 인간개조사업으로 변형)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들이 바로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그로 인한 파괴를 가장 선명히 드러내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원작의 간척사업과 극중 인간개조사업은 모두 지상의 낙원을 만들고자 하는 파우스트의 욕망이 행위로 드러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레첸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인간개조사업과 실패, 그로 인한 파우스트의 선택을 극의 클라이맥스에 배치한 데서 다시 한 번 이 작품을 바라보는 연출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호문쿨루스는 오랫동안 작가 조광화를 사로잡아온 주제인 ‘창조된 괴물’ ‘인조인간’ 모티프의 연장선상에 있는 캐릭터다. 〈철안봇다〉의 복제인간, 〈도화만발〉의 검객 케이, 〈프랑켄슈타인〉의 피조물 등 그의 연극에는 유달리 인공적인 창조물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들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괴물이라는 점, 평범한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난 힘(또는 지혜)을 가지고 있다는 점, 영원을 살지만 인간성을 결여한 존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바그너의 실험으로 탄생한 호문쿨루스 역시 이 계보를 잇는 창조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극중 그들을 창조한 인간을 비추는 거울로서 기능하며, 불완전한 모습을 통해 다시 한 번 우리의 일그러진 욕망을 깨닫게 만드는 존재들이다.

에너지와 온도로 이야기하는 연출

한편 조광화의 연극에서 사랑은 늘 구원이 아니라 결핍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아무리 사랑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근원적인 고독은 작가 조광화가 초기작부터 꾸준히 이어온 주제이기도 하다. 〈파우스트 엔딩〉에서도 숭고한 사랑과 희생으로 인한 구원은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전작들이 주로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에 발버둥치거나 묵묵히 견뎌내는 인물들을 그린 것과 달리, 이번 작품에서는 작가의 변화된 시선을 느낄 수 있다. 극중 그레첸과 파우스트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교감과 연대의 가능성이다. 실제로 조광화 연출은 연습 초기 드라마터그와의 토론에서도 이제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교감과 공감을 통해 공존을 추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보호’라는 이름 아래 자행하는 스스로의 가부장적 욕망을 인식하지 못한 채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는 발렌틴의 모습에서는 〈남자충동〉의 주인공 장정의 모습이 겹쳐지고, 거대한 지옥문이 열리는 장면은 〈도화만발〉의 엔딩 신과 이어지는 등 〈파우스트 엔딩〉은 곳곳에서 작가 조광화의 색깔을 보여주면서 고전의 복원이나 재현이 아닌, 작가세계의 계보를 잇는 창작물로서 작품의 의미를 드러낸다.

이와 함께 〈파우스트 엔딩〉에는 작가로서 뿐만 아니라 연출가로서 조광화의 특징도 뚜렷이 드러난다.

그는 무대에서 스토리보다는 에너지와 온도, 정서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연출가다. 특히 무대 위 배우들이 내뿜는 에너지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조광화 연출은 이번 공연에서도 이들의 존재감을 생생히 보여주기 위해 여러 장면과 장치들을 만들어냈다. 특히 무대를 가득 채우며 등장하는 거대 들개 퍼펫들은 작품의 아포칼립스적 세계관을 직관적인 정서로 전달하기 위한 장치다. 퍼펫 자체도 상당한 존재감을 보여주지만, 이를 움직이는 배우들의 에너지와 신체야말로 무대를 강력하게 장악하는 힘이다. 웬만한 뮤지컬 작품에 버금가는 안무와 움직임, 중간 중간 정서를 환기하고 주제를 응축해 보여주는 노래들과 무대를 압도하는 스펙터클한 군무 역시 말이나 이야기로 설명하기보다 몸과 에너지, 그리고 시청각적 감각을 통해 작품의 주제와 정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조광화의 연출 스타일을 느끼게 한다. 이는 또한 이 모든 화려한 장치가 없을 때 홀로 무대를 장악하는 배우의 존재감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는 효과도 있다.

세상이 끝나도 연극은 끝나지 않는다

작년에 <파우스트 엔딩>의 첫 연습이 진행되었을 때는 아직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이었다. 하지만 이후 여러 상황이 겹치면서 공연을 올리지 못했고, 그렇게 1년이 지나 다시 연습이 시작되었다. 지난 1년간 세상은 생각보다 많이 변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작품이 그리고 있는 인류세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 덕분에 극중 ‘전염병’ ‘마지막’ 같은 단어들이 전보다 훨씬 생생하게 와 닿았고, 종말을 향해가는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제목부터 ‘엔딩’을 내세우면서 파우스트의 엔딩과 세상의 엔딩, 인류의 엔딩을 이야기하는 이 작품을, 정작 만드는 사람들은 반대의 모습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점이다. 극중 메피스토는 어차피 사라질 것을 왜 힘들여 만드느냐고 충고하지만, 공연이 끝나면 사라질 무대인 줄 뻔히 알면서도 연출과 배우들은 온 힘을 다해 작품을 완성해갔다. 겨우내 마스크를 쓴 채 연습실을 뛰어다니고, 행여 위험할까봐 밥도 나가서 먹지 않으며 연습을 이어가는 배우와 스태프의 모습에서는 어떤 간절함과 절실함마저 느껴졌다.

극중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호문쿨루스는 이렇게 대답한다. “끝없는 열정.” 실제로 그 열정이 극중 파우스트로 하여금 끝없는 실험을 통해 결국 세상의 종말을 앞당기게 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연극은 바로 그 끝없는 열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예상치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해 연극의 종말이 온 게 아닌가 싶은 상황에서도 기어코 연극을 완성시킴으로써 연극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는 무대. 연극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보러 오는 사람들이나, 우리 모두는 여전히 ‘끝없는 열정’을 지닌 채 방향하며 나아가는 파우스트의 후예들인지도 모르겠다.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

전영애

서울대학교 독어독문과 명예교수

『파우스트』는 고대 그리스 신화로부터 중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3000여년”의 유럽 남북방을 아우르는 작품이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다 가지려는 욕망이 끝이 없는 ‘근대적인’ 인간이 무엇을 섭렵할 수 있으며 그 끝이 어떠한가, 그것이 이 작품의 문제의식이다. 오늘날, 여기에서, 『파우스트』를 다시 전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담은 세계가 크기 때문만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인간과 세계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 때문이다. 때로는 고아하고,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난해하고, 때로는 코믹하기까지 한 정교한 언어에 담겨 있는 이 깊고도 넓은 성찰들은 인간이 점점 더 왜소하고 허약해지는 시대에 각별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60여년을 두고 쓴 작품, 임종에 임박해서까지 그 2부를 다듬었으면서도 당대의 이해를 기대하기 어려워 봉인해버린 대작 『파우스트』. 무게에 먼저 압도되어서도 막상 잘 읽히지는 않는다. 그런데 『파우스트』는 드라마이다. 연극은 누구든 보지만 그 대본을 읽는 일은 그리 흔치 않기 때문에 더 생소할 수도 있다. 시詩이기도 하다. 다양한 운율이 지극히 정교하게 구사되어 운율의 보고라 할 12,111행의 운문 극, 즉 극시이다. 어떤 행은 심지어 열 번씩 고쳐 쓰기도 했다. 그 한 두 행이나마 마음에 남아 있어도 큰 소득이 될 만큼 다듬어진 글인 것이다.

작품이 방대해지고, 우리 시대까지 포섭하는 드라마가 된 것은 괴테가 작품에 도입한 절묘한 장치 덕분이기도 하다. 원래 『파우스트』는 우리의 흥분놀부전처럼 유럽에서 전래된 이야기로 기독교 세계의 권선징악을 담고 있다. 파우스트라는 불경한 인간이 영혼을 팔아(!) 24년간 복락을 누리고는 마땅하게도 지옥에 떨어졌다는 내용이다. 24년 기한의 그 한시적 ‘계약’을 괴테는 무기한의 ‘내기’로 바꾸었다. 더 이상은 바랄 바가 없는 그 어떤 순간을 향하여 “멈추어라, 너 참 아름답구나”라고 외칠 때까지 악마가 봉사하는 것이 계약조건이 된 것이다. 그런데 파우스트가 무모지 그 말을 하지 않아 작품은 방대해지고, 또한 200여년을 건너 뛰어 우리 시대와 바로 맞닿게 되었다. 끝없이 욕망에 추동되며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대 드라마가 되어서 말이다.

그런데 이 방대한 작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도 있다. <천상의 서곡>에서 주님이 파우스트를 메피스토펠레스의 손에다 맡기면서 하는 말,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 그런데 이 핵심 문장이 비문이다. 지향이 있는데, 즉 갈 곳이 있고 갈 곳을 아는데 방황한다니. 문장을 뒤집어 보면 함의가 깊다. 방황한다는 건 갈 곳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방황하지 않는 이 누가 있겠는가. 깊은 통찰과 위로가 담긴 단언이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로 많이 알려진 기존의 해석을 새 번역에서는 원어에 조금 더 밀착되게 바꾸었다.)[■]

■ <파우스트 엔딩> 공연에서는 관객에게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많은 논의 끝에 기존의 번역을 차용하였습니다._편집자 주

또 악마의 설정이 도무지 단순하지 않다. 절대 선의 대척점에 있는 어떤 외부의 악함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부정하는 영”이다. 아무것도 온화하게 바라보거나 보듬고 복돋우지 못하는, 그 어떤 꼬여 있는 자신 속의 한 부분이다. 메피스토펠레스[‘거짓말쟁이’와 ‘파괴자’의 합성어]는 노상 매끄러운 능변을 늘어놓는 캐릭터로 웅은 소리는 혼자 다 하지만 다만 그에게는 사랑이 없다. 그럼에도 “자극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루도록” 주님이 붙여준 친구이기도 하다.

주인공 파우스트는 “세계를 그 가장 내면에서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알고 싶은” 궁극의 탐구심을 가진 인물로 “하늘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별을, 지상에서는 최고의 쾌락을” 다 맛보고 싶은 캐릭터이다. 그런 인물이 평생 학문에만 매진하여 모든 학문을 다 섭렵했지만 남은 건 회의 뿐이어서, 자살까지 시도하는 노학자로 첫 등장한다. 그에게 악마가 맨 먼저 제공하는 것은 젊음이다. 그러나 그건 새로운 방향의 시작일 뿐. 젊은 사람이 되어 맨 먼저 해보는 건 사랑이지만, 그 좋다는 것이 좋게만 흘러가지 않는다. 지순한 소녀 그레첸이 살인자가 되고 광녀가 되어 감옥에서 갇혔다가 처형되는 것으로, 체험 가능 범위의 ‘작은 세계’를 보여주는 1부가 끝난다. 스물 두 살의 젊은 변호사 괴테가 목격한 영아살해녀의 처형—혼전 임신이 사회적으로 전혀 용인되지 않는 곳에서 아이를 죽일 수 밖에 없었던 미혼모를 그렇게 불렀고, 그런 여성은 공개 처형당했다—이 한 계기가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그 세상의 규범과 충돌하여 비극으로 급전되는 지점을 보여주는 것이 1부 후반부이다.



©Anton Kaibach

파우스트와 메피스토

2부에서는 그 시공이 체험 가능한 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큰 세계’가 펼쳐진다. 파우스트는 화폐발행 시점의 중세 말기 궁정에 등장하고(2부1막), 그의 꿈을 읽은, 방금 제조된 인조인간(200년 전이다!), 육신이 없는 정신의 정수, 호문쿨루스[‘小人’]의 안내로 고대 그리스로 간다(2부 2막). 헬레나, 즉 미美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만, 행복의 절정인 그 만남이 너무도 짧게 끝나고(2부3막)—그렇게 일장춘몽이어서 비극이다—, 속도의 시대가 되어가는 근대의 현실로 돌아온 파우스트는 황제를 도와 전쟁에 참여하고(2부4막) 그 공로로 하사 받은 해변의 매립공사를 벌이지만 거기에는 개발의 무리가 따르고, 욕망에 추동되는 행위에 수반되는 문제들도 여실하다(2부5막).

이 마지막 막에서 이제 100세가 된 파우스트가, 악귀조차 범접을 못하는 그의 대저택 안에서 열쇠구멍을 통해 스며든 것의 기습을 받는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피해 갈 수 없는 것, ‘근심’이다. “다만 세상을 달려왔다”는 파우스트에게 근심은 “인간은 평생토록 맹목이니” 종국에 눈멀라 하며 입김을 불

여넣는다. 눈 뜨고 있었건만 평생 맹목이었던, 그러나 이제 눈이 먼 파우스트에게서 마음의 눈[心]眼이 열린다. 들려오는 삽질 소리에서 그는 남녀노소가 모여 사는 공동체의 터를 그려보며 그 순간, 마침내 저 계약의 말, “멈추어라, 너 참 아름답구나!”을 외친다. 기나긴 봉사에서 풀려나는 악마는 패재를 부르지만 파우스트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곧바로 천상으로 오르는 것도 아니고 심산유곡을 헤매어 오르는데,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우리를 이끌어 올리네”라는 <신비의 합창>으로 마무리된다.

파우스트의 영혼은 악마의 계획과는 달리, 구원되는 듯이 보이고, 그를 이끄는 영원히 여성적인 것은 ‘사랑’이나 ‘생명의 원리’ 같은 것으로 읽힌다. ‘내기’의 이러한 결말은 많은 해석을 낳는다. 계약의 말을 파우스트가 외치기는 하지만 그것은 악마가 제공한 향락에 만족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어두운 충동”에 오래 사로잡히기도 했던 그의 속에 잠재해 있던 ‘선善’의 부분’의 발현이라, 구원되었다는 해석이 설득력이 있다. 그렇지만 파우스트가 이상향을 일구는 삽질 소리로 들은 것은, 기실 그의 무덤을 파는 삽질 소리이고 그 외침조차도 “멈추어라[...]”라는 단언이 아니고 “그 순간에게 내가 말해도 좋으리”가 덧붙여져 있다. 구원의 논구가 일격에 허구화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듯 흐려진 결말은 욕망의 끝과 닿아 있어 그 해석의 모는 작품의 현대성을 더욱 높인다.

그리하여 독자는 대단한 한 생애를 거쳐 다시 원점의 물음으로 돌아가게 된다. “지향이 있는 한 인간은 방향한다”로. 어떻게 해석되는 경우든, 파우스트라는 인물의 어마어마한 방향 앞에서 나의 보잘것없는 방향쯤은 충분히 용서할 만하다. 타인들의 그것에 대해서도 좀 너그러워질 수 있다. 파우스트가 간 길을 다 따라가보고 나면 도도한 서구 문명 3천년을 누빈 듯한 느낌과 방향하는 나 자신도, 방향하는 많은 다른 이도 겨안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작품이 다채로운 만큼 무대에 올려지는 공연의 역사 역시 다채롭기 그지없다. 연극은 원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대체로 연출가의 취사선택·해석이 두드러지는 ‘연출가 극’이 주류를 이루지만, 한 글자도 빼놓지 않을 정도로 극도로 원전에 충실함으로써 오히려 대단한 볼거리를 제공한 ‘21시간 완판본 공연’(페터 슈타인 연출 1999-2000년)도 있었다. 연출의 묘가 돋보이는 공연들은 1950년대(그뤼트겐의 연출) 이래 현대로 올수록 메피스토펠레스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이 두드러지는데, 그 다면적인 악의 면모를 두 남자가 나누어 역을 맡기도 하고, 남녀가 나누어 맡기도 했다. 심지어 열 두 명으로 나눈 공연까지 있었다. 도저히 하나의 형용사로 규정할 수 없는 폭을 가진 파우스트라는 큰 인물 역시 자주 청년과 장년의 배우가 나누어 맡곤 한다. 2021년 서울에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공연. 또 어떤 창의적인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크다.

※ 본 작품은 도서출판 길의 『파우스트』(전영애 번역_2019)를 바탕으로
조광화 작가 및 연출가에 의해 새롭게 재창작된 공연입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



1749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암마인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그리스어, 라틴어 등 다양한 언어를 배웠고, 그리스 로마의 고전문학과 성경 등을 읽으며 자랐다. 1772년 베를라에 있는 제국대법원에서 법관 시보로 일하면서 알게 된 샤를로테 부프와 사랑에 빠졌는데, 이때의 경험을 소설로 옮긴 것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다. 이후 교육, 재정, 건설, 군사 등 여러 분야의 행정에 참여하며 10년 남짓 국정을 이끌었으며 바이마르 극장의 운명을 책임지기도 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꾸준히 작품을 발표했는데, 1831년 60여 년에 걸쳐 집필한 필생의大作 『파우스트』를 탈고하고 이듬해인 1832년 83세의 나이로 영면했다.

주요 작품

『파우스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 『이탈리아 기행』 『서동시집』 외 다수

독일이 낳은 대문호
시인·극작가·
정치가·과학자

주요 연보

- | | |
|------|-------------------------|
| 1749 | 8월 2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출생 |
| 1767 | 첫 희곡 『연인의 변덕』 집필 |
| 1771 | 프랑크푸르트에서 변호사로 개업 |
| 1773 | 『파우스트』 집필 시작 |
| 1774 |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완성 |
| 1776 | 바이마르에서 추밀원 고문관에 임명 |
| 1782 | 황제 요제프 2세로부터 귀족의 칭호를 받음 |
| 1808 | 『파우스트』 1부 출간 |
| 1829 | 『빌헬름 마이스터』 집필 |
| 1831 | 『시와 진실』 『파우스트』 2부 완성 |
| 1832 | 3월 22일 사망 |

파우스트 공연연보



1977— 국립극장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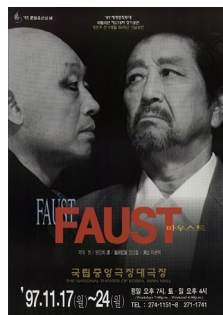
국립극단 창단 이래 첫 〈파우스트〉로 연출가 이해량의 10여년 만에 번역극 연출작이다. 배우 장민호가 파우스트로 열연했으며 김동원(메피스토), 백성희(마르테), 손숙(그레첸), 이호재(바그너) 등 총 62명이 출연한 대규모 무대였다.

〈파우스트〉는
국립극단 역사상
4명의 연출가에 의해
각기 다른 프로덕션으로
공연되었다.



1984— 국립극장 대극장

함부르크 국립극장 예술감독을 비롯한 독일 제작팀과 한국 배우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공연으로 한독수교 100주년 기념으로 상연되었다. 당시 많은 관객을 모은 작품으로 독일 연출가 디터 기징은 전설적이고 영웅적인 종래의 파우스트에서 벗어나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파헤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997— 국립극장 대극장

‘1997 세계 명작 무대’로 소개되었고 배우 장민호의 연기 인생 생활 50주년 기념 공연이기도 했다. 파우스트에는 장민호, 메피스토 신구, 젊은 파우스트로 이상직이 출연했다. 괴테의 원작을 오늘날 한국적 정서와 접목시켜 고전을 현대화해 관객들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021— 명동예술극장

2020년 창단 70주년을 맞이하여 국립극단 원로배우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된 기념 레퍼토리로, 2020년 연습 중 주연배우 부상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제작 중단되어 2021년 다시 기획되었다. 괴테의 원작을 기반으로 작가 이자 연출가인 조광화가 1, 2부로 구성된 방대한 원작을 과감하게 압축하고 동시대성을 보완해 〈파우스트 엔딩〉으로 재창작했다.

파우스트의 서재

정승호
무대디자인

괴테의 역작인 『파우스트』를 바탕으로한 이번 프로덕션 〈파우스트 엔딩〉의 무대디자인에 있어 가장 고민이 되었던 지점은 ‘인간의 욕망, 신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였습니다.

파우스트가 이루고 싶었던 자신의 세계에 대한 그의 노력이 느껴지는 공간이 필요했고, 그것은 그가 평생을 노력했던 학문에 대한 흔적들이라 하겠습니다. 공간의 모든 것들은 그 학문의 흔적들이 묻어있고, 그 허망함이 전체적으로 정돈되어있지 않은 배치로 표현되길 바랐습니다. 조광화 연출님의 풍부한 상상력을 현실화하기 위해 여러 리서치를 통해서 합을 맞췄고 의상·조명·소품디자이너와의 협업으로 연극적인 언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배우 부상 및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지난 시즌의 공연취소를 이겨내고 이번에 처음으로 관객분들을 만난다니 무척 설렙니다. 좋은 공연으로 이 위기의 시대에 작은 위로가 되길 희망합니다. 정성스럽게 무대를 제작해주신 무대사랑 박인석 대표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승호 Jeong Seung-ho

주요작품

연극 〈스카팡〉 〈노래처럼 말해줘〉 〈오이디푸스〉 〈리차드3세〉 〈로미오와 줄리엣〉 〈데블 인사이드〉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한강은 흐른다〉 〈프로즌〉 〈바나와 소녀와 마사와 스파이크〉 〈프랑켄슈타인〉 〈햄릿〉 〈14인의 체홉〉 〈터미널〉 〈한꺼번에 두 주인을〉 외

뮤지컬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 〈레베카〉 〈엑스칼리버〉 〈닥터 지바고〉 〈페스트〉 〈모차르트〉 〈베르테르〉 〈황태자 루돌프〉 〈남한산성〉 〈스위니토드〉 〈렌트〉 외

오페라 〈돈지오바니〉 〈코지 판 투테〉 〈도요새의 강〉 〈마술피리〉 외

무용 〈호이랑〉 〈더 룸〉 〈리진〉 〈봄의 제전〉 〈시 읽는 시간〉 외

창극 〈춘향〉 외

수상

2020 한국뮤지컬어워즈 ‘무대예술상’ 〈엑스칼리버〉

2019 예그린 뮤지컬 어워즈 ‘무대예술상’ 〈엑스칼리버〉

2013 더 뮤지컬 어워즈 ‘무대미술상’ 〈레베카〉

2011 더 뮤지컬 어워즈 ‘무대미술상’ 〈남한산성〉

2008 한국뮤지컬대상 ‘무대미술상’ 〈내 마음의 풍금〉

2008 더 뮤지컬 어워즈 ‘무대미술상’ 〈스위니토드〉

2007 서울공연예술제 ‘무대미술상’ 〈벚꽃동산〉

책과 서류와 도면으로 가득차 있다.
18세기 유럽풍 골격의 구조물
아프리카 또는 아시아 전통의 건축재료
천문학과 연금술을 연상케 하는 도면들
주술적 문양과 장식들





문수호
퍼펫디자인

인형doll이란 인간을 닮은 형태일 터인데 무대에서 우리가 다루는 인형puppet은 인간을 담은 형상을 말하는 것이리라.

미술가의 눈으로 보는 그들은 오브제로서 무대 위 배우들과 평등하다.
무대 위 배우가 인형을 일방적으로 조종한다 생각하지만 사실 이들은 서로 조종하기도, 때로는 당하기도 하면서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이제 이들의 형상을 만드는 나의 일은 끝이 났다.
이들에게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고 교감하는지 지켜볼 시간만 남았다.

공연이 끝나면 그 삶도 함께 끝나는 단순하지만 물성이 다른 나의 멋진 인형 배우들,
그리고 그들과 교감하며 에너지를 나누어 준 인간 배우들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마르테

문수호 Moon Su-ho

주요작품

[공연]

퍼펫디자인 <Titus Andronicus>

연출·퍼펫디자인 <한-체코 문화교류사업 공연 이면세계>
<다락에서> <Papier Papier> <영월단종문화제 거대
마리오네트 '단종'> <여수엑스포 세계박람회 로드퍼포
먼스 '연안이'>

연출 <한-체코 문화교류행사 PRAHA ARIRANG>
<평창문화올림픽 거대마리오네트 'King of the
Kangwon'> <수궁가>

[전시·아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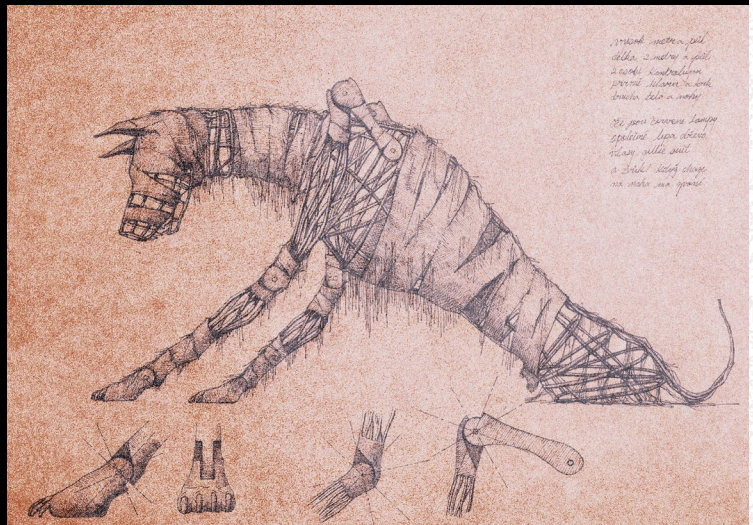
<Story of puppet> <Puppet, 인형, 人形, Loutky
exhibition> <Story of puppet exhibition> <零年
후의마리오네트> <UNIMA FESTUM> <문화창조융합
센터발굴 '인형작가' 문수호 '퍼펫오브제'> <Pra ské
Quadriennale 세계무대미술대전 작가관 초청
'Temple of our gods'> 외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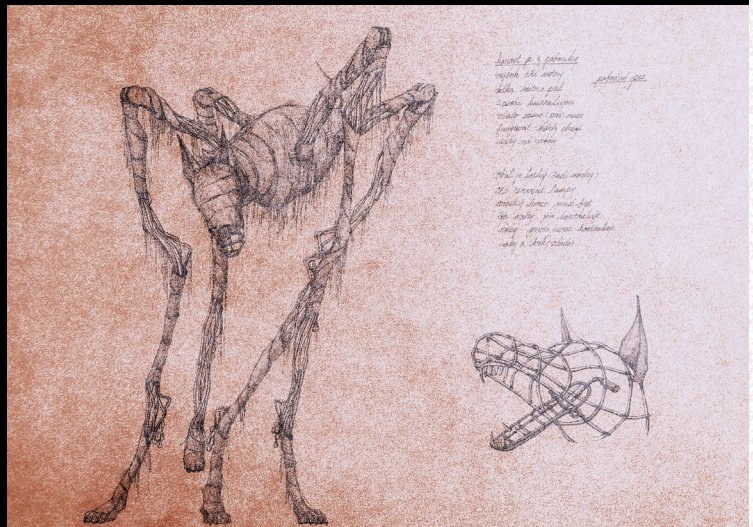
2014 UNIMA festum 2014 올해의 작가 선정

2007 Prazske Quadriennale 2007 UNESCO

수상



들개



거미개





스태프

원작—요한 볼프강 폰 괴테 Johann Wolfgang von Goethe

번역—전영애 Chon Young-Ae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명예교수

독일 바이마르 고전주의 재단 Klassik Stiftung Weimar 연구원

저서 『시인의 집』 『어두운 시대와 고통의 언어: 파울 첼란의 시』 『독일의 현대문학: 분단과 통일의 성찰』 『괴테의 도시 바이마르에서 온 편지』 『괴테와 담시』 외

번역 『괴테 시 전집』 『서·동 시집』 『데미안』 『변신·시골의사』 『나누어진 하늘』 『나와 마주하는 시간』 『헤르만 헤세 대표 시선』 외

재창작·연출—조광화 Jo Kwang-hwa

프로필 _ 5페이지

드라마투르기—김주연 Kim Ju-yeon

연극 <울구-몽유도원> <갈리레이의 생애> <조치원 해문이> <치정> <햇빛사위> <나는 왜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살> <농담> <사라지다> <풍찬노숙> <도화만발> 외

무대—정승호 Jeong Seung-ho

프로필 _ 26페이지

안무—심새인 Shim Sae-in

연극 <템플> <소> <러브스코어> <먼나라 이노무나라> <미친키스> <B-CLASS> <남자충동> <뜨거운 여름> <도화만발> 외

뮤지컬 <경종> <카라마조프> <로미오와 줄리엣> <곤 투모로우> <바람직한 청소년> <판타지아> <드가장> <알로하 대불> <미아 패밀리아> <라 레볼루션> 외

무용 <moment> <Welcome to 품BAR> <Urban Lives> <In 인> <invitation> <통, Reorganization> <합, Reorganization> 외

음악—변지민 Byun Ji-min

연극 [음악감독/공동연출] <너라는 부모>

웹뮤지컬 [작곡/공동연출] <솔로탈출 재난 불록버스터>

퍼펫—문수호 Moon Su-ho

프로필 _ 29페이지

조명—정태진 Jeong Tae-jin

연극 <실수연발> <나의처음은밤이면양들을사러마켓에간다> <새새> <남자충동> <미친키스> <도화만발> <프랑켄슈타인> <생존도시> <철안봇다> <발판> <뜨거운 양철지붕 위의 고양이> 외

뮤지컬 <베르테르> <남한산성>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라디오스타> <내 마음의 풍금> <I Love You> <차가운 심장> <천사의 발톱> 외

오페라 <La Traviata> <피가로의 결혼> <마술피리> <안중근> 외

전시 <2012 여수 EXPO POSCO 기업관 주제쇼 및 기업전시관> 외

의상—홍문기 Hong Moon-gi

연극 <WIFE> <킹스 스피치>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 <녹천에는 똥이 많다> <얼굴도둑> <그게 아닌데> <옥상 발 고추는 왜> <남자충동> <널 위한 날 위한 너> <왕위 주장자들> <미친키스> <함익> <살짝 넘어갔다가 얻어맞았다> <햄릿-더 플레이> <M. butterfly> <주인이 오셨다> <다정도 병인 양하여> 외

뮤지컬 <인터뷰> <루드워> <풍월주> <모래시계> <마리 퀴리> <카라마조프> <틱틱 뽀> <로기수> <아가사> <사춘기> 외

분장—채송화 Chai Song-wha

연극 <스카펫> <한여름 밤의 꿈> <남자충동> <프랑켄슈타인> <주홍글씨> <메피스토> <돈키호테> <오이디푸스> <도화만발> 외

뮤지컬 <헤드워> <젠틀맨스 가이드> <서편제> <갯초> <오페라의 유령> <마리 앙투아네트> <위키드> <노트르담 드 파리> <이블데드> 외

기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폐막식> 외

수상 2014 서울 연극인상 '스태프상' <한여름 밤의 꿈>

2009 더 뮤지컬 어워즈 '무대미술상' <미녀는 괴로워>

소품—노주연 Noh Ju-yeon

연극 <킹스 스피치> <아트> <연체인> <시련> <텍사스 고모> <돌아서서 떠나라> <스물> <킬 미 나우> <창조경제_공공극장편> <프랑켄슈타인> 외

뮤지컬 <인사이드 윌리엄> <작은 아씨들> <에어포트 베이비> <시데레우스> <베르테르> <샤이닝> <쓰릴 미> <최후진술> <친정엄마> <스모크> <난설> <풍월주> 외

오페라 <돈조반니> <코지 판 투테_여잔 다 그레> <라트라비아타> <마술피리> <투란도트> <박상진> <리콜레토> <안드레 셰니에> 외

음향·영상—김석기 Kim Seok-gi

연극 [음향디자이너] <미친키스> <프랑켄슈타인> <도화만발> <폴포러브> <메리제인> 외

[영상디자이너] <지하철 존재론> <배신>

뮤지컬 [영상디자이너] <콩나물 버스> <해피한 하루> 외

공연기술 <해와 달에 관한 오래된 기억> <리처드3세를 찾아서> <지하철 존재론> <거의 엘렉트라>

조연출—이정연 Lee Jeong-yeon

연극 [연출] <러브앤피스> <오후 네시, 갤럭시2관 앞> <당신의 집에 관한 짧은 연극> 외

[조연출] <페스트> <입양인> 외

뮤지컬 [조연출] <베르테르>

만드는 사람들

출연

김성녀 파우스트	김세환 바그너 외	신사랑 그레첸 외
박완규 메피스토	김진 학생 외	이원준 시장 외
강현우 독약장수 외	박경주 펠레몬 외	이종혁 시민 외
고애리 바우키스 외	박성민 인문학도 외	장재호 발렌틴 외
권은혜 마르테(호문쿨루스) 외	박용환 법학도 외	전주일 학생 외
김보나 헬레나 외	변상문 시민 외	

스태프

원작 요한 볼프강 폰 괴테 Johann Wolfgang von Goethe	무대어시스턴트 김소연	메인디자인 페이퍼프레스_대표 박신우
번역 전영애(도서출판 길)	의상어시스턴트 박은주 문혜민 변은아 최미림	응용디자인 스튜디오 봄봄_대표 김은총
재창작·연출 조광화	김주현	홍보·공연사진 나승열
	소품어시스턴트 배현아 김연경	연습사진 김신중
드라마투르기 김주연		공연영상 연두픽쳐스_대표 조윤수
무대 정승호	무대제작 무대사랑_대표 박인석	홍보영상 심하린
안무·움직임 심새인	퍼펫제작 문수호	하이라이트영상 오슬로 프로젝트_대표 이영관
음악 변지민	의상제작 이엘_대표 홍문기	옥외광고 애니애드_대표 윤한국
퍼펫 문수호	소품제작 연스테이지_대표 노주연	홍보물 인쇄 인타임_대표 김종민
조명 정태진	조명장비임차 (주)칠삼컴퍼니_대표 백시원	
의상 홍문기		티켓 김효진
분장 채송화	조명프로그램머 문동민	하우스매니저 김나래
소품 노주연	조명팀 김봉균 박지선 이민주 조은실 박현수 한중엽	하우스안내원 이지은 이지예 정해룡 임예은 박다연
음향·영상 김석기	음향팀 박상준 김학준	박선준 홍정선 예한비 이신영 김다빈 고정윤
조연출 이정연		채지성 김나윤 김소희 안수진
	영문자막 번역 조용경	
기술감독 김무석	영문자막 제작·운영 김건	프로그램북 디자인 허미경
무대감독 김정빈		프로그램북 인쇄 미림아트_대표 신동복
무대제작감독 경은주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조명감독·조명오퍼레이터 김용주	홍보 이정현 김유연	기획·제작 총괄 김옥경
음향감독·음향오퍼레이터 박정현	마케팅 김수현	프로듀서 심소연 지영림
영상오퍼레이터 김석기	온라인마케팅 오지수 조영채	제작진행 박소영
의상감독 박지수	후원 이승이	
		제작 (재)국립극단
무대진행 최성관 이미현 최소영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의상진행 신은혜 김민주		사무국장 오현실
분장진행 강보경 최서윤 김다정 이엽		
타투특수분장 김린정		

재단법인 국립극단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재단법인 국립극단은 연극인 및 연극예술 후원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예술감독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언제나 삶의 진실한 목소리를 담은 연극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연극은 곧 예술의 근원이자 총체이기도 합니다. 국립극단은 시와 음악, 춤, 시간과 공간, 미디어 등 모든 것을 아울렀던 연극 본연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며, 또한 동시대인의 삶과 밀접히 관련된 수준 높은 작품으로 세계와 적극 소통할 것입니다. 그 꿈과 열정의 무대가 관객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진한 감동으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With the board of directors who have been committed in theater or have been patrons for the performing arts,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under the guiding system of the artistic director has always endeavored to stage productions that reverberate with truth and life. We are always reminded of the fact that theater has been the origin of all arts, and it should always reflect thoughtful introspection on humankind and society.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will continue its effort to realize the very spirit of theater which embraces the verse, music, and dance in the newly renovated form of media and understanding of space. By staging performances that address contemporary problems, we will interact and exchange ideas with the world with our belief that our endeavor will only be completed when our performances touch and move the hearts of our audiences.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현 이사장 네이버(주) 前 대표이사 | 김광보 이사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 길해연 이사 연극배우 | 김명화 이사 극작 및 평론가 | 심재찬 이사 연출가 |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김철호 이사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 윤성천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작품개발팀

지민주 팀장 | 한나래 조유림 작품개발·학술 | 이지연 아카이브

공연기획팀

김옥경 팀장 | 김철순 심소연 정혜영 지영림 이정민 박소영 프로듀서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 이정현 김유연 최윤영 홍보 | 박보영 김태은 오지수 김수현 이승이 변정원 조영채 마케팅 | 이현아 김보진 김보배 김효진 티켓 | 김나래 이기쁨 하우스매니저

무대기술팀

김무석 팀장 | 신승호 김정빈 나혜민 김태연 무대감독 | 홍영진 이승수 경은주 무대제작감독 |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장도희 음향감독 |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 박지수 무대의상감독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 신민희 대외·평가·예산·감사 | 현승은 박지민 김수아 예산·회계·세무 | 정병옥 시설·용역·공사 | 박예원 인사·복무·복지 후생 | 이민희 이사회·제도·교육 | 김시내 비서·윤리경영·경영공시 | 주현우 노무·자산·계약·정보화·전산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 손준형 연구원 | 최은정 예술교육 | 김연경 작품개발·운영

2020-2021 시즌단원

강현우 고애리 권은혜 김명기 김보나 김세환 김예림 문예주 박소연 박용우 송석근 이상홍 이원준 이유진



강현우

〈파우스트 엔딩〉
박본 신작(제목 미정)
[창작공감: 연출]

고애리

〈파우스트 엔딩〉
[창작공감: 연출]
〈로드킬 인 더 씨어터〉

2021년



김보나

〈파우스트 엔딩〉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엔젤스 인 아메리카〉

김세환

〈파우스트 엔딩〉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SWEAT 스위트〉



권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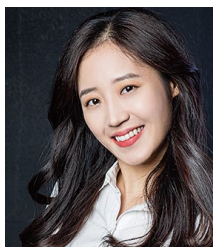
〈파우스트 엔딩〉
[창작공감: 작가]
〈엔젤스 인 아메리카〉

김명기

〈X의 비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만선〉

국립극단과

시즌단원이



김예림

〈X의 비극〉
박본 신작(제목 미정)
〈만선〉

함께합니다.



박용우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SWEAT 스위트〉
〈채식주의자〉



문예주

〈X의 비극〉
[창작공감: 연출]
〈로드킬 인 더 씨어터〉

박소연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박본 신작(제목 미정)
〈로드킬 인 더 씨어터〉



송석근

〈X의 비극〉
〈SWEAT 스위트〉
〈만선〉

이상홍

〈X의 비극〉
〈만선〉
〈로드킬 인 더 씨어터〉



이원준

〈파우스트 엔딩〉
[창작공감: 연출]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이유진

〈X의 비극〉
박본 신작(제목 미정)
〈로드킬 인 더 씨어터〉

괄호 안은
단원들의 출연작입니다.

국립극단 평동예술극장

파우스트 엔딩

2.26.-3.28.

원작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재창작 연출 조광화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4.9.-5.9.

원작 기훈상
각색 연출 고선웅

만 마디를 대신하는 말 한 마디

중극화극
남극공연 5.12.-5.16.

원작 류전원 각색 모우선
연출 윤시중

장 공의 체면

중극화극
남극공연 5.12.-5.16.

작 원광이
연출 이준우

진중자 陳仲子

중극화극
남극공연 5.12.-5.16.

작 왕런제 청본작가 직함 이자람
연출 박지혜

SWEAT 스웨트: 땀, 힘겨운 노동

5.28.-6.27.

작 린 노티지
연출 안경모

만선

9.3.-9.19.

작 천승제 연출 윤미현
연출 심재한

SPAF 초청공연1

10.4.-10.10.

미정

로드킬 인 더 씨어터

10.22.-11.14.

작 연출 구자혜

엔젤스 인 아메리카

11.26.-12.26.

작 토니 커쉬너
연출 신유청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및 소극장 판

X의 비극

3.12.-4.4.

소극장 판

작 이유전
연출 윤혜진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SETUP 202 가제 4.15.-5.9.

백성희장민호극장

원작 박상영 각색 김연제
연출 임지란

액트리스 원: 국민로봇배우 1호 액트리스 투: 악역전문로봇

SETUP 202 가제 4.15.-5.9.

소극장 판

작 연출 정진세

당글매다

SETUP 202 가제 4.15.-5.9.

서계동 야외마당

구성 EASThug
연출 고동욱

소년이그랬다

5.21.-6.13.

백성희장민호극장

원작 톨 라이코스 & 스테포 난부
극본 한현주 연출 남인우

박본 신작

제목 미정

6.23.-7.18.

백성희장민호극장

작 연출 박본

SPAF 초청공연2

10.4.-10.10.

백성희장민호극장

미정

청소년극

제목 미정

10.29.-11.21.

백성희장민호극장

미정

해외 공동제작공연

채식주의자

12.6.-12.11.

리에주극장 (벨기에)

원작 한강
각색 연출 켈마 알투이

스트레인지 뷰티

가제

12.6.-12.11.

리에주극장 (벨기에)

작 공동창작
연출 배요셉

※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별 공연 예매 개시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합니다.

국립극단 공연안내
2021

희곡우체통 극작가전

X의 비극

작. 이유진

연출. 윤혜진

드라마투르기 김슬기

무대 남경식

조명 성미림

의상 안해은

음악·음향 백인성

분장 장경숙

소품 남혜연

움직임 밝닝쿨

출연

김명기 김예림

문예주 송석근

이상홍 이유진

2021. 3. 12. - 4. 4.

국립극단 소극장 판



국립극단

SHINSEGAE
신성개
국립극단
무문티켓

국립극단 1644-2003

연극이 보고 싶을 땐!

국립극단 회원만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앉고 싶은 좌석을 누구보다 빠르게, 할인 받고 예약하는 즐거움까지

유료회원

* 가입기간 1년

친한친구 연회비 5만원

- 제작공연 40%할인(전등급, 4매 한)
- 국립극단 기념품 제공
- 제작공연 티켓 우선 예약

국립극단 연극인회원

* 가입기간 3년

가입대상 연극계 종사자

- 제작공연 50%할인(전등급, 본인 1매 한)

좋은친구 연회비 10만원

- 친한친구 혜택
- 제작공연 1개 작품 초청
(R석 2매, 명동예술극장 기준)

무료회원

- 국립극단 홈페이지 예약 시 수수료 면제
- 공연 프로그램 및 포스터 무료 다운로드

문의 및 가입

국립극단 홈페이지
www.ntck.or.kr

고객센터
1644-2003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양한 기념품을
만들어 주세요.

2019.10.
〈알리바이 연대기〉 관객 의견



마스킹 테이프 등
기념품 추가 제작

2020.1.



자판기 판매 음료를
늘려주세요.

2019. 4.
〈갈릴레이의 생애〉 관객 의견



극장 내
자판기 메뉴 추가

2019. 5.



프로그램북을
구하고 싶어요.

2018. 6.
〈얼굴도둑〉 관객 의견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
(홈페이지)

2018. 8.



오늘도 국립극단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조사(약 1분 소요)에 참여하세요.
* 고객만족도조사는 공연 기간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극단 제휴처 혜택 안내



국립극단 공연 입장권을 소지하시고
해당 매장을 방문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인터파크**
명동 북앤샵

02-6004-7391

- 도서 10% 할인 및 아메리카노 1+1 쿠폰 증정
(잡지, 특가도서, 중고도서 제외)
- 북카페 전 메뉴 20% 할인



28 HOTEL
TWENTY
EIGHT
명동점

02-774-2828

- 호텔28 레스토랑 '비스트로 수방' 10% 할인



오설록

티하우스 명동점

02-774-5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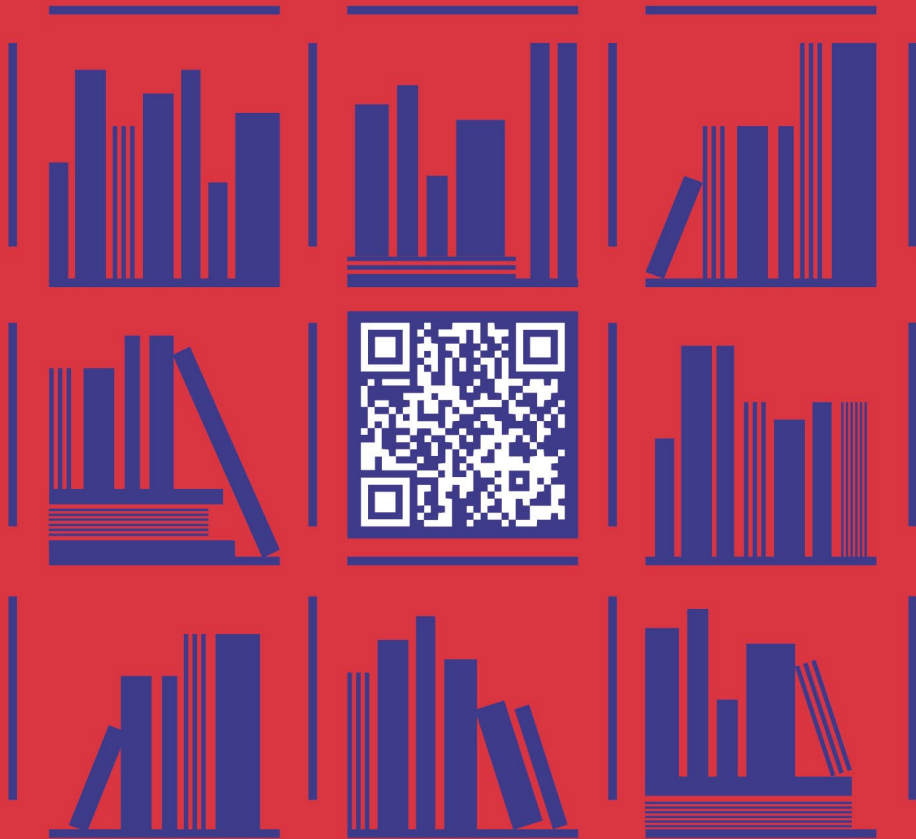
- 전체 메뉴 10% 할인

제휴처별 상세정보는 국립극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휴문의 02-3279-2278 www.ntck.or.kr



1950-2020
국립극단의 70년을 한곳에 담았습니다



국립극단 디지털 아카이브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늘 그러셨듯 또 인간에게 또 속는 거죠.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gdong, Jung-gu, Seoul, Korea(04534)



국립극단